

‘실용 외교’ 내건 이재명… 車업계, 미국 관세 돌파구 기대

트럼프發 25% 관세에 수출 타격
현대차·기아, 3개월치 재고 확보
한국GM, 북미 비중 커 유동성 마련
“실용 외교로 통상 리스크 줄여야”

‘실용 외교’를 내세웠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후폭풍이 본격화되면서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의 경우 수요 감소와 맞물리면서 대미 수출액 감소가 뚜렷해고 있다. 철강·알루미늄도 기존 계약물량이 소진되면서 실적 타격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4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지난 4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시행 전 3개월치 재고를 확보해 운영하며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이어왔다. 지난 4월 24일 이승조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은 “3월 말까지 최대한 선적을 추진해 완성차와 부품 재고를 최대한 비축했다”며 “완성차 기준 북미에서 3개월치 재고를 확보했으며 부품은 그보다 더 긴 재고를 확보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아도 현대차와 비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 부두.

슷한 수준의 재고 물량을 확보했으며 6월 2일까지는 미국 내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시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GM의 부담도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GM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47만4735대를 수출했는데 이 중 80%를 북미 시장에서 판매했을 정도다. 업계에서는 한국GM이 지난달 28일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2022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부평 2공장 등의 토지와 시설 매각을 추진하는 등 유동

성 확보에 나선 것과 관련해 관세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처럼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지만 올 하반기 이후에는 관세 충격에 따른 매출과 수익성 악화가 본격화 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앞세워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주당 대표시절 충남 아산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산업 등의 통상 위기를 점검한 바 있다. 당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의 애로 사항을 논의했다. 또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 설비를 둘러보고 차세대 기술 개발과 생산력 제고를 위한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동차 등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도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은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도 국내에서의 생산을 장려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와 부품 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교에 나서길 기대한다”며 “자율주행과 친환경, 소프트웨어 정의 차(SDV) 등의 규제 완화와 제도 유연화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갤Z 폴드7’ 티저 공개

“울트라 경험을 펼치다”

삼성전자가 내달 초 공개할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7’의 티저 영상을 4일 처음으로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자사 뉴스룸에 ‘울트라 경험을 펼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능적 디자인과 기술의 조화를 통해 일상을 향상시킬 차세대 갤럭시를 올려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밀한 하드웨어, 강력한 성능, 폼팩터에 최적화된 인공지능(AI)까지 울트라에 기대하는 모든 요소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푸른 빛을 띤 갤럭시 Z 폴드가 세로로 접혔다가 펼쳐지는 모습이 담겼다. 접었을 때는 기존 제품보다 길쭉한 비율이 완화돼 일반 바(bar) 타입 스마트폰처럼 보이는 점이 눈에 띈다. 폴드를 닫은 상태에서도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이 이번 제품에서 ‘울트라’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은 성능 향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혜민 기자

현대차그룹, 세계 무대에서 ‘모빌리티 리더십’ 입증

FISITA 2025서 국내 최초 회장 배출
넥쏘 전시·SDV·수소 등 기술력 공개
연구원 17명 기술논문 발표 글로벌 주목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최대 자동차 공학 학술행사인 ‘FISITA 월드 모빌리티 컨퍼런스 2025(FISITA WMC 2025)’에서 미래 모빌리티 리더십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전략을 이끄는 김창환 부사장이 한국인 최초로 FISITA 회장에 선출되며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가운데, 호세 무뇨스 사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현대차의 미래 기술 철학을 세계에 알렸다. 자율주행, 수소, 소프트웨어 정의 차(SDV) 등 핵심 기술 발표와 넥쏘 전시를 통해 그룹의 기술 경쟁력도 적극 부각했다.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콘그레스 센터에서 열린 FISITA WMC(FISITA World Mobility Conference)에서 현대차 대표이사 호세 무뇨스 사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은 세계자동차공학회연합(FISITA)이 주최한 ‘FISITA WMC 2025’에서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3~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콩그

레스 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현대차그룹은 기조연설과 기술 세션,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그룹의 기술력과 방향성을 공개했다.

무뇨스 사장은 행사 첫날 기조연설에서 “현대차그룹은 인류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술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제조 자동화 시스템, 자율주행, 배터리·연료전지 시스템, 미국 내 HTWO 수소충전소 기술 등을 소개했다.

이어 현대차그룹과의 대화 세션에서는 무뇨스 사장을 비롯한 글로벌 모빌리티 업계 리더들이 미래 산업 발전 방향을 토론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했다.

무뇨스 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의

로서 동료들과 현대차의 모빌리티 여정을 공유하게 돼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4일부터는 현대차·기아 소속 연구원들이 유럽 기술 파트너십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 개발 기술을 소개하는 특별 세션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버추얼 성능 검증 기술 ▲고장 예측·관리(PHM) 기반(SDV 새시 신뢰성 연구 ▲EV(전기차) 조화 성능을 위한 부싱(스펜션 등에 쓰이는 작은 고무 또는 폴리우레탄 부품) 신기술 등이 소개됐다.

또 배터리, 바디 선행기술, 열관리, 자율주행, 전동화 설계 등 주제로 현대차·기아 연구원 17명이 직접 논문을 발표하며 기술 역량을 입증했다. ‘수소사회 실현을 향한 올곧은 신념’을 주제로 한 전시존도 운영하고 있다.

/양성문 기자



삼성전자가 내달 초 공개할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7’의 티저 영상을 자사 뉴스룸에 공개했다. /삼성전자 뉴스룸 티저 영상 캡처

에쓰오일

공공 유류 공급에

실시간 지도 도입

에쓰오일이 유류공급 협약주유소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실시간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쓰오일은 지난 4월 조달청의 ‘유류공동구매 사업자(6차)’로 선정됐으며 주유소 가격 검색 플랫폼 ‘오일나우’ 앱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 유류 공급 협약주유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기반 지도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이 주관하는 ‘유류공동구매사업’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품질이 보장된 유류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에쓰오일은 전국 단위의 유류 공급망과 ‘좋은 기름’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제품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노력과 신뢰를 인정받아 지난 5차 사업(2022년 4월~2025년 3월)에 이어 이번 6차 사업에서도 공급사로 연속 선정됐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 ‘AI 홈’으로 중남미 공략 나선다

중남미 13개국 전문가·미디어 초청

삼성전자는 3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2025년 중남미 테크 세미나’를 열고, 2025년형 ‘비스포크 인공지능(AI) 가전’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했다고 4일 밝혔다. 중남미 13개국에서 온 업계 전문가와 테크 전문 미디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냉장고 ▲세탁기와 건조기 ▲제트 400W 무선청소기 ▲무풍 에어컨 등으로

구성된 ‘AI 홈’ 주요 가전 라인업을 전시했다. 특히 가전에 탑재된 스크린을 활용한 직관적 사용자 경험, AI 기반 에너지 절약 기능, 음성 제어 서비스인 빅스비, 스마트싱스를 통한 가전 연동 기술 등을 선보이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삼성전자는 행사장에 AI 홈 콘셉트의 체험형 공간인 ‘샘스 하우스’를 조성해 관람객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비스포크 AI 가전’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이혜민 기자 hyem@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친환경 기술 개발

한화오션, 노르쉬핑서 3건 MOU

한화오션이 글로벌 선급과 협력해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을 비롯한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확보에 나선다.

한화오션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 중인 국제선박전시회 노르쉬핑 2025에서 한국선급(KR), 노르웨이선급(DNV) 등과 총 3건의 친환경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선급(KR)과는 15만CBM(큐빅미터)급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개발에 나선다. 현재 건조되고 있는 암모니

아 운반선은 9만 3000CBM급이 가장 큰 사이즈다. 암모니아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연료다. 향후 무탄소 시대를 이끌어 갈 대표적인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한화오션은 한국선급과 LNG운반선의 선수거주구 배치 설계 변경을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선수거주구 배치 설계를 변경하면 에너지 절감 장치의 배치 최적화를 통해 친환경 선박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

DNV와는 맥티브 연료탱크 관련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이승용 기자 lsy2665@